

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

2009년 8월 넷째주

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What's Happening in Music Industry? [2009년 8월 넷째주]

8월 넷째주 음악산업 동향

-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, 어디까지가 표절인가?
- 자유롭게 장르를 변형하고 믹스할 수 있는 음악 파일 포맷 MXP4 등장
- EMI, 음반시장 불황과 소속 아티스트와의 불화로 120년 만에 부도 위기

콘텐츠 목차

1. 소비자 동향

- 1-1. 2009년 8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
- 1-2.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, MP3 플레이어 보유

2. 산업 동향

- 2-1.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, 어디까지 표절인가?
- 2-2. 블로거, 스스로 예술을 하다 : 전국 블로거 노래마당 개최
- 2-3. 스타를 인터넷 메인 페이지로 설정할 수 있는 IT 솔루션 서비스

3. 기술 동향

- 3-1. 차세대 디지털 음악 앨범의 형태 - 칵테일 vs CMX 포맷
- 3-2. 휴렛-팩커드(HP)와 힙합 뮤지션 Dr. Dre, 디지털 음원 음질 향상을 위한 협력
- 3-3. 장르 변경 가능 음악파일 MXP4 등장

4. 정책 동향

- 4-1. 문화체육관광부, '개정 저작권법 해설' 발간/배포

5. 해외 동향

- 5-1. EMI, 음반 시장 불황과 소속가수와의 불화로 부도 위기
- 5-2. CMJ 뮤직 마라톤 & 필름 페스티벌 2009 개최
- 5-3. 영국 10대의 3분의 2, P2P사이트를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
 - 청소년 불법 다운로드 시 부모가 1억원까지 배상하는 법안 추진 중
- 5-4. 유튜브와 타임워너, 온라인 동영상 전송 계약 체결

※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

1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8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

순위	멜론(8.9-8.15)		도시락(8.10-8.16)		엠넷(8.10-8.16)		벅스(8.6-2009.8.12)	
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
1	—	Abr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	—	Abr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	—	Abr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	—	Wanna - 카라
2	—	I Don't Care - 2NE1	—	Wanna - 카라	—	Wanna - 카라	진입	연애특강 - 마이티마우스
3	↑2	Wanna - 카라	↑3	거짓말 - 티아라	—	바래 - FT아일랜드	진입	Abr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
4	↓1	Indian Boy - MC몽	—	I Don't Care - 2NE1	↑1	거짓말 - 티아라	↓1	거짓말 - 티아라
5	↑1	바래 - FT아일랜드	↓2	Indian Boy - MC몽	↑1	I Don't Care - 2NE1	↓3	Indian Boy - MC몽
6	↓2	냉면 - 명카드라이브	↓1	바래 - FT아일랜드	↑1	미스터 - 카라	진입	미스터 - 카라
7	↑9	거짓말 - 티아라	↑6	미스터 - 카라	↓3	Indian Boy - MC몽	↓3	I Don't Care - 2NE1
8	↑1	Hot Issue - 4minute	↑35	연애특강 - 마이티마우스	↑27	연애특강 - 마이티마우스	↓3	바래 - FT아일랜드
9	↓1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↓2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—	아몰레드 - 손담비	진입	MAD - 바다
10	↓3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↓1	Pretty Boy - 2NE1	↑36	MAD - 바다	↓4	아몰레드 - 손담비
11	↑2	아몰레드 - 손담비	—	아몰레드 - 손담비	↓3	냉면 - 명카드라이브	진입	장미 - 화요비
12	↓2	결혼해 줄래 - 이승기	↓4	냉면 - 명카드라이브	↓2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↑1	1004 (너는 내운명 2) - M To M
13	↓2	외톨이 - 아웃사이더	↓3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—	Hot Issue - 4minute	↓5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
14	↓2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—	Hot Issue - 4minute	—	Pretty Boy - 2NE1	—	Hot Issue - 4minute
15	—	Pretty Boy - 2NE1	↑1	In The Club - 2NE1	↓3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↓8	죽도록 사랑해 2 - MC몽
16	↓2	니가 밍다 - 2PM	↓4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↑1	In The Club - 2NE1	↓7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
17	↑48	연애특강 - 마이티마우스	↓2	결혼해 줄래 - 이승기	↓6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↓6	결혼해 줄래 - 이승기
18	↓1	잘가요 내사랑 - 에이트	↓1	외톨이 - 아웃사이더	↑1	있잖아 - IU	진입	하이힐 - 박혜경
19	—	True Romance - 드림콘타이거	↑40	MAD - 바다	↓4	결혼해 줄래 - 이승기	↓9	고잉고잉 - 롤라
20	—	별이 빛나는 밤에 - 원투	↑25	울고 싶어 우는 사람이 있겠어 - 에이트	↓2	외톨이 - 아웃사이더	진입	Pretty Boy - 2NE1

(멜론, 도시락, 벅스, 엠넷의 '09.8월 2주차 스트리밍 기준)

- 브라운 아이드 걸스, 카라, 2NE1, 티아라 등 걸그룹의 절대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, 힙합듀오 마이티 마우스의 신곡 ‘연애특강’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 중
 - 박스 2위(진입), 도시락 전주비 35위 상승한 8위, 엠넷 27위 상승한 8위, 멜론 48위 상승한 17위 차지
 - 마이티 마우스는 발표하는 곡마다 원더걸스의 선예(에너지), 손담비(패밀리), 윤은혜(사랑해), 한예슬(연애특강) 등 여가수/여배우의 곡 피처링을 통해 초반 이슈화를 노려왔음
 - 경쾌하고 발랄한 마이티 마우스의 음악 분위기가 계절적 요인과 만나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임
 - 이 외에도 ‘립싱크 논란’을 통해 라이브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굳힌 바다의 ‘MAD’ 또한 급 상승하며 인기 (박스 9위 진입, 엠넷 36위 상승한 10위, 도시락 40위 상승한 19위)

순위	전주 比 변동	곡명 - 아티스트
1	-	Ab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
2	↑3	거짓말 - 티아라
3	↑3	Wanna - 카라
4	↑13	연애특강 - 마이티마우스
5	↑2	제목없음 - 이름없는얼굴
6	↑2	사랑보다 아름다운 말 - MC몽
7	↓5	Indian Boy - MC몽
8	↓5	I Don't Care - 2NE1
9	↓5	바래 - FT아일랜드
10	진입	Call Me - 허경영
11	-	In The Club - 2NE1
12	↑7	Butterfly - 러브홀릭스
13	↑3	나만 모르게 - Supreme Team
14	↓1	Let's Go Party - 2NE1
15	↓5	미스터 - 카라
16	↓1	Say You Love Me - MYMP
17	↓8	결혼해 출래 - 이승기
18	진입	Supermagic - Supreme Team
19	↓1	True Romance - 드렁큰타이거
20	진입	Slow Motion - Karina

(8/10~8/16일, 싸이월드 BGM 판매순위차트 기준)

- 온라인 스트리밍 차트와 인기곡 자체는 크게 차이 없는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순위변동이 온라인 차트에 비해 심하게 나타남
- 특히 인터넷에서 ‘허본좌’로 불리며 논란과 인기를 모은 허경영의 ‘Call me’가 10위로 진입하며 인터넷 상에서의 관심 입증
- 제목 없음의 ‘이름없는 얼굴’이 순위 지속 상승 중이며, 래퍼 Supreme Team이 두 곡이나 20위에 진입하는 등 온라인 차트에서 보기 힘든 장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, 소비자가 평소에 듣는 음악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듣는 음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

1-2.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MP3 플레이어 보유

- 소비자 중 83.3%가 MP3 플레이어를, 29.4%가 PM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(둘 다 보유하고 있음, 25.8%)
 -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8/3일부터 5일간 'MP3플레이어와 PMP 비교 소비자 조사' 설문 실시
 - 향후 2년 내 재구매율은 각각 MP3플레이어 57.4%, PMP 42.1%를 기록했으며 MP3 플레이어의 재구매 우선 고려 브랜드는 애플 아이팟(33.5%), 아이리버(29.9%), 삼성엠피(22.3%)임
 - 현재 보유하고 있는 MP3플레이어는 가격이 '5만원~10만원 미만'(28.1%)이며, 저장용량 2GB(29.6%)인 아이리버 제품 (34.4%)이 가장 많음
 - 구매 시 주 고려요인은 디자인, 가격, 브랜드순이며, 재구매 시에는 디자인, 가격, 저장용량을 주로 고려
- MP3플레이어의 용량이 확대되면서 4GB MP3 플레이어 보편화
 - '09.1월 실시된 MP3플레이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, 2GB 사용자는 1.7%(27.9%→29.6%), 4GB 사용자는 10.8%(17.7%→28.5%) 증가
 - 고음질 음악 파일이 보편화되고 단말기 제조 기술(저장장치 압축 등)이 발달하면서 대용량 재생기기 보급이 빠르게 확대

2 산업 동향

2-1.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, 어디까지 표절인가?

- 빅뱅의 지드래곤 솔로 데뷔곡 '하트 브레이커' 표절 논란
 - 빅뱅 지드래곤 솔로 데뷔곡인 '하트 브레이커(Heart Breaker)'의 30초가량이 미국 힙합 가수 플로 라이다(Flo Rida)의 '라이트 라운드(Right Round)' 비슷하다는 지적
 - '라이트 라운드' 지분을 50%이상 보유 중인 워너채플 측은 '하트브레이커'가 발표된 18일, 미국 원작자에게 노래를 전달해 판단을 맡긴 상태
 - 워너 채플 코리아는 18일 '하트브레이커' 완곡 공개 후, "확인 차 미국 본사에 음원을 보낸 것일뿐,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"고 밝힘
- 표절 여부 결론은 쉽게 결론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
 - '라이트 라운드'의 원작자는 10명이며 '라이트 라운드'는 원곡을 샘플링해 만든 곡이라 표절 여부 판단이 어려움
 - 국내에서는 '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전 음반 심의기구를 없애면서 표절

문제가 친고죄로 변경, 원작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

- 작사 작곡이 명백히 나뉘져 있어 표절 판단이 쉬운 한국과 달리 공동작업을 많이 하는 외국은 의견을 나누고 표절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림
- 가요계 히트곡의 표절 논란은 끊이지 않는 이슈로 유사한 구절 외에도 무단 샘플링*, 무단 리메이크*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절 논란
 - 한국음악출판사협회(KMPA)는 “8마디 이하를 베끼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”이라며 “원곡의 멜로디, 가사, 리듬, 편곡방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가 표절”이라고 밝힘
 - 샘플링이나 리메이크 등도 원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표절 행위에 해당

※ 샘플링 : 특정 녹음물에서 일정 부분을 기술적으로 추출해 쓰는 것

※ 리메이크 : 한 작곡자에 의해 제작된 곡을 편곡만 달리해 다시 녹음하는 것

2-2. 블로거, 스스로 예술을 하다 : 전국 블로거 노래마당 개최 (8/21, 라이브 클럽 SSAM)

- '전국!! 블로거 노래마당'(http://social-media.kr/302) 개최
 - 일시 및 장소 : 8/21일 오후 8시, 홍대 라이브 클럽 SSAM
 - 주제 : 'Of the Bloggers, By the Bloggers, For the Bloggers'
 - 프로그램 : 1부 - 노래마당, 2부 - 다과 및 이벤트
- 문화향유자인 블로거들이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 수행
 - 개인 블로그 및 마이크로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, 상품지원, 행사지원
 - 블로거들의 자발적 제안서를 통해 기업후원 확정
 - '09.6월, 블로거들의 도움으로 '티맥스소프트'의 '위대한도전 이벤트'에 선정
 - 행사당일 운영 스태프 또한 블로거들의 지원으로 진행
 -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에 있어 각자의 영역에서 특화된 능력을 각 참여 블로거가 제공함으로써 행사가 진행됨 → Web 2.0 시대를 맞아 문화향유와 제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, 새로운 문화 향유의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
 - 아직은 시작 단계로 향후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홍보, 기획, 창작의 영역까지 확대,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

2-3. 스타를 인터넷 메인 페이지로 설정할 수 있는 IT 솔루션 서비스 시작

- IT 솔루션 '글로씨 스타 플랫폼' 서비스 시작
 - 글로씨 인터넷*의 시작페이지에 스타들의 국내외 팬 네트워크를 연결하여, 스타의 최신 뉴스,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성

-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로 된 스타의 해외 활동정보와 팬사이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번역, 국내외 팬들 사이의 직접적인 정보교류 가능
 - '글로씨 스타 플랫폼'에 탑재된 '코퍼스챗' 프로그램 활용 시 해외 팬들과 실시간 의사소통도 가능
 - 비, FT 아일랜드, SS501, 조성모 등 가수 및 인기스타 100여명 참여
 - 글로씨 홈페이지(www.glosee.com) 및 각 스타의 소속사 홈페이지, 팬카페, 미니홈피, 블로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
- 의사소통의 장벽을 뛰어넘은 글로벌 팬덤 구축이 가능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
- 기업은 스타 플랫폼 시작페이지에 스폰서 광고로 참여
 - 각 스타와 별도 계약 없이 자사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광고를 각 스타 팬들의 나이나 유형에 따라 타겟광고 실시
 - 스타가 별도 광고활동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
- ※ 글로씨 : (주)에이아이코퍼스가 개발한 웹 검색브라우저로 국내/외 인공지능, 검색, 번역 등 IT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, 한글로 전세계 지식정보를 검색 가능하며, 기존 검색시간을 1/10로 단축하였음. 2010년에는 다국어 브라우저 개발 예정

3 기술 동향

3-1. 차세대 디지털 음악 앨범의 형태 - 칵테일 vs CMX 포맷

- 차세대 디지털 음악 앨범의 형태가 애플의 프로젝트 '칵테일'과 메이저 레이블의 'CMX 포맷'으로 나뉨
 - 애플과 음반회사들은 각자의 포맷을 내세우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음악 앨범이라는 새로운 패키지 형식의 앨범을 통한 수익창출에 협력
- 애플, 대형 음반사들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'칵테일' 프로젝트 진행 계획 발표 (7/27일)
 - 애플, '09.9월 타블렛 PC 발매 시 칵테일 프로젝트 공개 예정
 - 칵테일 프로젝트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 형태로, 앨범 자켓과 음악 뿐만 아니라 가사집, 사진, 비디오들과 함께 제공되는 CD레코드나 DVD 미디어의 디지털화 버전
- 대형 음반회사인 Sony, Warner, Universal, EMI, CMX 앨범 다운로드 포맷 개발 착수
 - CMX 포맷은 디지털 음악 앨범 형태로 애플의 칵테일 프로젝트와 유사
 - 아마존에서 다운로드 가능(음악, 자켓, 가사집, 사진, 비디오 등 포함)
- 애플의 칵테일과 아마존의 CMX 포맷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작용 관계
 - CMX의 포맷은 애플의 맥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계획이며, 애플의 칵테일 역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
 - 애플은 음반회사들의 CMX 포맷 공용화에 동참하는 대신 자회사 프로젝트인 칵테일 프로젝트에 집중
 - 기존 CD 제작에 참여했던 앨범 아트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음악 앨범 계획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 창출 가능하게 됨
 - 두 포맷은 CD 판매의 감소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, 현재 싱글 음원 판매가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
- 국내에서는 '06년 앨범 수록곡을 자체 재생 기능으로 바로 청취 가능한 '디지털 디스크'가 출시된 바 있으며 칵테일과 CMX 포맷은 디지털 디스크의 진화된 형태

3-2. 휴렛-팩커드(HP)와 힙합 뮤지션 Dr. Dre 디지털 음원 음질 향상을 위한 협력

- 힙합 뮤지션 Dr. Dre, Interscope Records, 컴퓨터 제조 회사 휴렛-팩커드(HP)가 디지털 음원의 음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기기 디자인 협력
 - 기존 디지털 음원의 음질이 안 좋다고 평가, 향상된 음질과 그에 걸맞은 이어폰 혹은 헤드셋이 필요하다고 판단
 - Dr.Dre가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헤드셋 "Beats by Dr. Dre"를 디자인/발매하였

고(베스트바이와 애플스토어에서 구입가능) HP는 이에 어울리는 고사양의 노트북을 '09년 가을 시판 예정



[그림. "beats by dr. dre" 헤드셋]

- 시장조사기관 NPD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디지털 음원의 음질에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음
 - 음악을 생동감 있게 듣기 위해서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기꺼이 구하지만 애플의 다수 소비자들의 경우 번들로 제공되는 이어폰과 아이튠즈 소프트웨어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, 음질의 경우 256 kbps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함
- 현재 음악 판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(아이튠즈)와의 경쟁을 위해 음악사업자는 애플과 상생하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음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
 - MP3는 CD에 비해 음질이 나쁜 게 사실이었으나, 지속적인 노력으로 MP3도 CD에 견줄 만한 음질로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
 - 음악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음원 패키지 판매가 보편화될 경우 지금보다 음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
 - 거대 음반사들은 향후 좋은 음질을 내세우는 프로모션 전략을 세우게 될 것

3-3. 장르 변경 가능 음악파일 MXP4 등장

- 다양한 장르로 음악을 변주하여 들을 수 있는 MXP4 파일 등장
 - MXP4로 제작된 사운드 파일은 오리지널 버전 뿐 아니라 테크노, 포크, 락 버전으로 변주 가능

- 현재, 영국 가수 베이스먼트 잭스 (Basement Jaxx), 초특급 신인 라 루(La Roux), 릴리 알렌(Lily Allen)의 음악을 MXP4 포맷으로 이용 가능
- MXP4Player는 MXP4 포맷의 전용 플레이어로 Mix It, Sing It, Remix It, Max It 4가지 방식으로 음악 장르를 변형
 1. Mix It : 여러 다양한 악기와 음성 부분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이를 혼합,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있음
 2. Sing It : 노래 가사가 화면에 표시되어 사용자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함, 또한 웹캠을 통해 사용자들 버전을 녹음하여 공유 가능
 3. Remix It : 이미 리믹스된 여러 버전을 서로 혼합하는 일명 매쉬업(Mash-ups)
 4. Max It : 곡을 플레이 할 때마다 다른 장르의 버전을 제공
- 음악에 ‘체험’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아티스트에게 또다른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이용자는 MPX4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버전을 녹음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공유 가능
 - MXP4는 현재 3가지 다른 언어로 녹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가라오케 형식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로 언어에 상관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 가능
 - 현재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1년 내에 MXP4 다운로드 파일 개발 계획
 - MXP4는 이미 레코드, 브랜드, 양방향 CD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추진 중

4 정책 동향

4-1. 문화체육관광부, ‘개정 저작권법 해설’ 발간/배포

-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), 7/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“개정 저작권법 해설”을 발간/배포
 - 주요 내용은 ‘저작권법 개요’, ‘개정 배경 및 이유’, ‘주요 개정 내용’ 및 저작권법령 등
 - 8월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, 관련 부처, 지방자치단체, 법학 연구소, 관련 단체 등에 배포 예정
 - 문화체육관광부(www.mcst.go.kr) 및 한국저작권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(출처 표시 시 자유롭게 활용 가능)
- 이 외에도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,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,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한 저작권 홍보 추진
 - ‘09년 하반기,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,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예정
 -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을 이용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생활 속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함

5 해외 동향

5-1. EMI, 음반 시장 불황과 소속 가수와의 불화로 부도 위기

- EMI를 인수한 영국 사모펀드 테라 퍼마 캐피털 파트너스(Terra Firma Capital Partners)가 대규모 부채 때문에 채무불이행 선언 위기 (8/15일, 월스트리트저널(WSJ) 보도)
 - '07년 테라 퍼마 캐피털 파트너스, 24억 파운드(한화 약 5조원)에 EMI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당시 씨티그룹에 빌린 9억 5,000만 파운드(약 1조 9천억원) 상환 위기
 - EMI 뮤직의 수익은 '03~'07년까지 약 19.5% 하락하였으며(운영 수익 '03년 4억100만 파운드 → '07년 1억 5,700만파운드 손실) EM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'06년 12.8% → '08년 9.6%로 하락하며 수익구조 악화
- 테라 퍼마는 인수 이후 대규모 직원해고는 물론 아티스트 배분 수익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행 31년간 EMI와 함께 했던 롤링스톤스가 떠나는 등 타격을 입음
 - EMI 뮤직의 간부 100명 중 80명 교체, 직원 6,000명 중 1,400명 해고
 - 가수와 밴드에 대한 선지급 관행을 삭제하는 등 아티스트 배분 수익 낮춤
 - 이로 인해 31년간 EMI에 소속되어 있던 롤링스톤즈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아티스트의 반발도 막대
 - 업계에서는 테라 퍼마가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지적
 - 특히 EMI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, 사라장(장영주), 첼리스트 양성원, 장한나, 피아니스트 백혜선, 임동혁 등 국내 최고 연주자들이 소속되어 있어, 이들의 음반 녹음과 국내 매니지먼트가 위축될 가능성
- 최근 동종업계회사들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음반업계가 위기인 것으로 보임
 - 8/6일 워너뮤직의 3/4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손실이 3,700만 달러, 매출은 9.3% 하락한 7억 6,900만 달러를 기록
 - 디지털 음원 판매수익은 꾸준히 증가하나 2007~2008년에는 전세계적으로 CD판매가 15.4% 하락하는 등 음반업계의 위기

5-2. CMJ 뮤직 마라톤 & 필름 페스티벌 2009 개최 (10/20~24, 미국 뉴욕)

- CMJ 뮤직 마라톤 & 필름 페스티벌 개최 (10/20~24, 미국 뉴욕)
 - 1,300 팀 이상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12만명에 달하는 음악 팬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음악 산업과 독립 영화 감상 등을 위해 참여
 - 맨하탄과 브루클린 지역, 75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공연이 열리며 이벤트, 쇼케이스, 프리젠테이션, Q&A,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 예정
 - CMJ 페스티벌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 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명성의 페스티벌

- 뉴욕대(New York University)와 파트너십을 통한 토론 및 세미나 예정
 - 맨하탄의 그린위치 빌리지에 위치한 NYU의 Kimmel Center에서 패널 토론, 네트워킹 이벤트, 연설 등의 이벤트 준비
 - 토론 주제는 “새로운 기술과 음악 창조”, “왜 메이저 레이블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?” 등
 -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법률 세미나 및 예술과 스포츠 법률 등 NYU와 연계를 통한 세미나 제공
- CMJ 페스티벌은 매년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소개 및 공연 기회 제공
 - MGMT('07), Killers('03), Eminem('98), Green Day('94) 등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CMJ 페스티벌을 통해 소개되어 공연
 - 이런 전통에 따라 '09년에 공연할 재능있는 신진 아티스트는 8월 말에 발표 예정

5-3. 영국 10대의 3분의 2, P2P사이트를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

- UK 뮤직이 하트퍼드셔 대학교(University of Hertfordshire)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10대 중 75%가 이메일, 블루투스, 스카이프, MSN 등을 통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음악을 전송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음악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10대 중 75%가 이메일, 블루투스, 스카이프, MSN 등을 통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음악 전송 경험
 - 평균적으로 8,000곡 이상을 pc에 보유하며 86%가 CD로 복사해서 친구에게 준 경험이 있음
 - 응답자의 68%가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며 스포티파이(Spotify)같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인기도도 불구하고 78%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지 않음
 - 응답자의 87%는 무제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의 이용료가 조정되기를 원하며, 57%는 그렇게 된다면 불법으로 파일 공유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함
 - 10대에게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
- 최근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녀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을 경우 인터넷을 끊거나 부모에게 최대 5만 파운드(약 1억원)의 벌금을 청구하는 방안 추진 (英 텔레그래프지 보도)
 - 영국 국민 12명 가운데 1명꼴인 7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, 해마다 14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 발생

5-4. 유튜브와 타임워너, 온라인 동영상 전송 계약 체결 (8/19일)

- 유튜브, 타임워너의 뉴스, 영화,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 제공 계약 체결

- 이에 따라 유튜브는 타임워너 동영상에 탑재할 광고 모델을 준비 중 (구글과의 연동)
 - 타임워너 콘텐츠가 이용자의 집객을 높이면 광고 효과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
 - 타임워너는 자사 콘텐츠에 따른 유튜브 광고 수익의 절반을 회수

- 이번 계약이 동영상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할 것인지 기대

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**1-1. 2009년 8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**

엠넷 www.mnet.com

멜론 www.melon.com

도시락 www.dosrak.com

벅스 www.bugs.co.kr

싸이월드 www.cyworld.com

1-2.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MP3 플레이어 보유

2009.8.17, 투데이 코리아, 소비자 10명중 8명 'MP3플레이어' 보유, 'PMP'는 3명꼴
트렌드 모니터, www.trendmonitor.co.kr

2-1.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, 어디까지 표절인가?

뉴스엔, 09/08/18, EMI 퍼블리싱 측 "표절은 성급한 판단, 원작자 결론 기다려야"

뉴스엔, 09/08/19, 지드래곤 표절논란 확인작업 길어질듯 '원작자만 10명'

아시아경제, 09/08/19, 지드래곤 표절 시비, 왜 한발 물러섰나

한국경제, 09/08/14, "지드래곤, '표절가능성'으로 미국에 음원을 보낸다?"

쿠키뉴스, 09/08/17, '일단 베끼고 나중에 합의하고'...표절로 멎든 가요계 '천태만상'

2-2. 블로거, 스스로 예술을 하다 : 전국 블로거 노래마당 개최

ETNEWS, 09/08/18, 블로거가 마련한 블로거 행사 열린다

한국아이디지, 09/08/18, 소셜 네트워킹 진가 발휘, '전국 블로거 노래마당' 열려

2-3. 스타를 인터넷 메인 페이지로 설정할 수 있는 IT 솔루션 서비스 시작

이데일리, 09/08/19, 비-SS501, 신개념 웹 브라우저서 전세계 팬들과 소통

아시아경제, 09/08/19, 김민준-윤계상-조한선 등 IT기술 접목-팬들과 교류 시도

스포츠칸, 09/08/18, 톱스타들 전세계 팬들과 소통, 글로씨 스타 플랫폼 오픈

3-1. 차세대 디지털 음악 앨범의 형태 - 각테일 vs CMX 포맷

Wired, 09/08/11, Apple, Record Labels Diverge Over Next-Generation Full-Album Music Format

Wired, 09/07/27, Apple and Labels Hope to Reinvent Digital Album as Something People Buy

Wired, 09/07/27, Financial Times Confirms Apple Tablet for September

Wired, 09/08/04, The Album Is Dead, Long Live the App

Wired, 07/04/02, Designers Work to Rescue a Dying Art Form -- the Album Cover

Times Online, 09/08/08, Sony, Warner, Universal and EMI to launch CMX album download format

3-2. 휴렛-팩커드(HP)와 힙합 뮤지션 Dr. Dre, 디지털 음원 음질 향상을 위한 협력

Cnet News, 09/08/11, HP, Dr. Dre plan new 'digital music ecosystem'

The Music Industry Report, 09/08/11, HP, Dr. Dre plan new 'digital music ecosystem'

Engadget, 09/08/15, HP teaming with Dr. Dre for new 'Beats' line, music ecosystem in the works

Consequence of Sound, 09/08/13, Dr. Dre teams up with Hewlett-Packard to save music!

Cnet News, 08/08/28, Monster Beats by Dr. Dre headphones

3-3. 장르 변경 가능 음악파일 MXP4 등장

Billboard, 09/08/12, Britain's Royal Opera Wants You To Make Tweet Music

AP, 09/08/11, UK's Royal Opera House to perform 'Twitter' opera

LA times, 09/08/11, The first -- and maybe last -- Twitter Opera

4-1. 문화체육관광부, '개정 저작권법 해설' 발간/배포

디지털타임스, 09/08/19, 문화부, '개정 저작권법 해설' 발간

국정포털, 09/08/18, 개정 저작권법 해설 발간

5-1. EMI, 음반 시장 불황과 소속가수와의 불화로 부도 위기

뉴스엔, 09/08.17, 롤링스톤스와 결별 EMI, 1조9천억원 부채 상환하고 부도위기 벗어날까?

아시아경제, 09/08/16, 라디오헤드의 고향 'EMI', 부도 위기

연합뉴스, 09/08/15, "음반회사 EMI 부도위기"〈WSJ〉

5-2. CMJ 뮤직 마라톤 & 필름 페스티벌 2009 개최

The Music Industry Report, 09/08/11, CMJ 2009 Announced

NME, 08/11/20, Dates announced for CMJ 2009

CMJ Music Marathon & Film Festival 2009, www.cmj.com/marathon2009/index.php

5-3. 영국 10대의 3분의 2, P2P사이트를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

YTN, 09/08/17, "불법 다운로드 방치한 부모에게 벌금 1억"

한국아이디지, 09/08/17, 영국 10대 2/3, "음악 불법 다운로드"

5-4. 유튜브와 타임워너, 온라인 동영상 전송 계약 체결

지디넷코리아, 09/08/20, 유튜브-타임워너, 영상사업 '맞손'

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콘(www.wecon.kr)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
과장 김도윤(TEL 02-3153-1286 , doyun.kim@kocca.kr)